

지역 소식통

정읍시, 안정적 혈액 수급
헌혈 추진협의회 가져

정읍시는 지역 내 민·관·군 헌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혈액 확보를 위해 13일 헌혈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헌혈 추진협의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혈액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헌혈 수급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이날 회의는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정읍아산병원 전담혈액원, 정읍교육청, 정읍경찰서,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육군 제808부대 제3대대, 언론사 등 9개 기관에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기관단체별로 헌혈 장려 방안과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역사회 혈액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지난해 10월에 열린 하반기 헌혈 추진협의회 건의 사항에 대한 성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주 대정농협
하나로마트서 특판행사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높을고창 수박'이 제주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지난 10~12일까지 모슬포항으로 유명한 서귀포 대정읍에 위치한 대정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프리미엄수박인 '높을고창 수박' 특별판매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고창군,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정농협과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선 '높을고창 수박'과 '과육이 노란 블랙박스 수박'을 홍보 판매해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구매가 이어졌다.

고창수박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지난해 행사때 '높을고창 수박'을 처음 먹었는데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가 인상적이었다"며 "올해도 제주도에서 고창수박을 다시 맛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인은 정읍시가 지킨다!”

시, 군 북부 지역 청년... 상해 보험료 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정읍시가 대한민국을 지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북부하는 정읍지역 거주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군 북부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피해 청년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군 북부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군 북부 청년 '상해보험'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 북부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질병 발생 시 상해보험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군 북부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시행해 올해까지 4년째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의 군부대에서 병역의무(사병)를 수행하는 청년이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관, 해담하며, 사회복지요원 등의 보충역과 직업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 또는 다른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는 혜택이 확대되어 군 북부 중

에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일당 지급액이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질병이나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원,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로 각 30만원이 지원되며, 기간 내 수술 시 10만원이 추가로 보상 지급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납부하고,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함께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로컬푸드, 1억원 이상 판매고 '인기폭발'

지난 1주일간 날개돋힌 듯 팔려

부안로컬푸드가 지난 1주일(6월 6일 ~ 12일)간 전국적으로 1억원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했다.

그 시작은 부안로컬푸드 직매장으로 6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로컬푸드 직매장 1주년 상생행사를 진행하여 부안산 무항생제 한돈 및 제철과일인 수박,체리,복숭아등이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뤘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부안군 농산물의 홍보에도 힘을 써 하루평균 400명 이상의 소비자가 찾아 6천만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또한 6월10일 진행된 11번가 라이브 생쇼 외전 부안로컬푸드 특집으로 계화쌀,오디관자,양파김치등을 판매하였으며, 10일~12일 격포에서 진행된 직거래장터에도 부안로컬푸드의 로컬푸드 상품을 홍보판매하여 관광객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이뤄냈다.



부안로컬푸드가 지난 1주일(6월 6일 ~ 12일)간 전국적으로 1억원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했다

내며 4천만원의 매출을 이뤄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부안로컬푸드 이미지 상승 및 높은 판매량과 매출액으로 소비자는 좋은품

질에 만족하고 생산자는 소득증대의 기회가 되었다며, 생산자·소비자가 만족하는 부안로컬푸드가 되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호응'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사업체 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함께 투입, 최대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흥업·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는 지역 내 3,000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7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및 팩스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9억8천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지난 4~6일과 5월21~22일 두차례에 걸쳐 2022년 대죽도 해양치유캠프를 운영했다.

'소나무 숲에서 파도소리와 힐링'

고창군, 대죽도 해양치유캠프 '대만족'

고창군이 지난 4~6일과 5월21~22일 두차례에 걸쳐 2022년 대죽도 해양치유캠프를 운영했다.

'대죽도 해양치유캠프'는 고창군 해양치유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획됐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 내 대죽도에서 해양치유 체험 기회와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해양치유'는 바다의 바람·소리·물, 갯벌,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해양치유캠프는 갯벌체험, 해상숲산림욕·요가 명상, 별밤 동화구연·음악회, 별밤의 해루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해상숲에서의 산림욕은 무인도의 갯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해안에서 진행된 고창군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파도소리와 시원한 해풍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해양치유캠프 참가자는 "고창갯벌에서의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몸이 정화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3~4차 대죽도 해양치유캠프는 9월에 진행하게 되며,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군청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찾아가는 과학관·과학교실 운영

다양한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22년 두드림 프로젝트 '찾아가는 과학관 및 과학교실'이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부안예술회관과 부안청립천문대에서 운영된다.

두드림 프로젝트는 매년 지역·계층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 복권기금사업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공모에서 전국 10개 권역 중 전북권역 운영기관으로 남원시 남원항공우주전문대가 선정되어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부안군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과학관의 전시 구성은 △이동형 과학기술 작품 체험물 콘텐츠 전시 28여 종 △이동형 과학차량 콘텐츠 7종이며, 과학교실은 △태양에너지 활용한 전자기동차 만들기 총 3개 존으로 구성됐다.

교육청소년과 유안숙 과장은 "이번 2022년 두드림 프로젝트가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과학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인재 양성에 밑거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과학관 및 과학교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청립천문대(063-580-3896)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